International Labor Brief 국제노동브리프 | 2021년 8월호 pp.95~102
한국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최근 영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과 정부 대응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로 영국에서는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EU 출신 외국인 노동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이 시행되고 국경 통제도 강화되면서, 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국이 봉쇄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자[1]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디언지는 영국이 1997년 이래 최악의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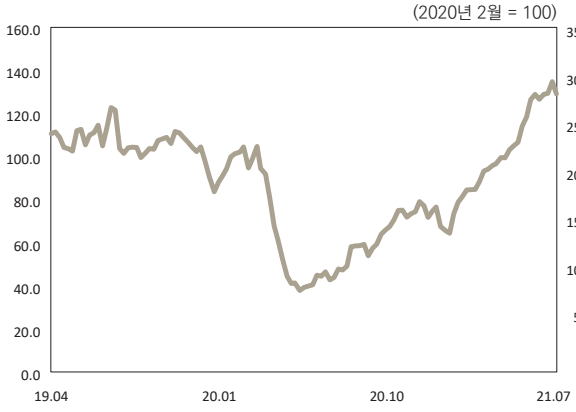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 통계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영국의 노동력 부족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임금 인상 등 노동력 부족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한다.

1) 2021년 4월 12일부터 음식점 등의 실외 영업을 허가했고, 5월 17일부터는 실내 영업도 허가하였으며, 7월 19일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봉쇄조치를 해제하였다.
2) Richard Partington(2021), "UK Employers Struggle with Worst Labour Shortage since 1997", July 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

■ 노동력 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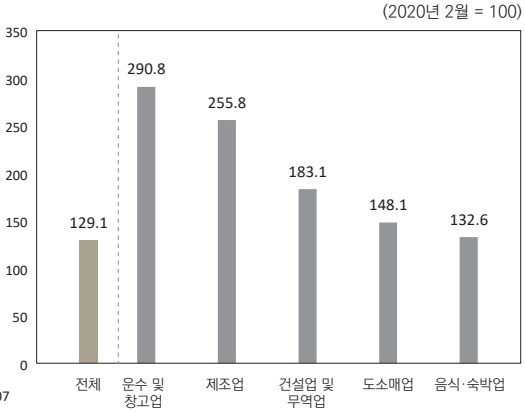
영국 통계청(ONS)의 온라인 구인광고지수를 보면, 최근 영국의 봉쇄정책이 완화되면서 구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통계청이 구인광고 검색엔진 아드주나(Adzuna)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출하는 동 지수는 2020년 2월 평균 구인광고 수를 기준(100)으로 하는데, 봉쇄정책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5월 중에는 37.9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7월 둘째 주에는 129.1에 달했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은 290.8로 기준시점 대비 3배에 달하며, 제조업(255.8), 건설업 및 무역업(183.1), 도소매업(148.1), 음식·숙박업(132.6) 등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온라인 구인광고지수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Online Job Advert Estimates",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그림 2] 산업별 온라인 구인광고지수



주 : 2021년 7월 둘째 주 기준.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Online Job Advert Estimates",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또한 영국 공인인력개발협회(CIPD)가 고용주 1천여 명의 올해 2분기 고용계획을 조사한 순고용 점수(net employment score)도 +27로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3)]

이와 같이 노동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노동공급은 코로나19 및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

3) CIPD(2021), "Labour Market Outlook : Spring 2021", https://www.cipd.co.uk/Images/labour-market-outlook-spring-2021_tcm18-95263.pdf (검색일 : 202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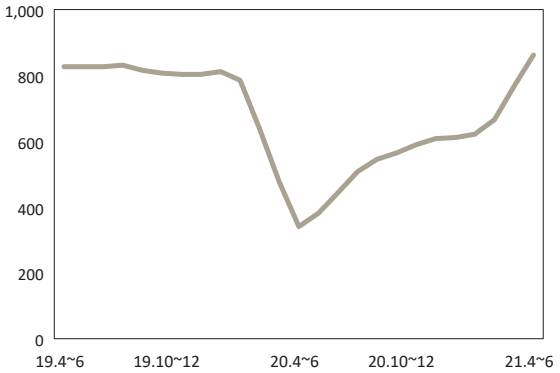
노동자 감소[4] 등으로 제한되면서 영국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6월에 평균 빈 일자리 수[5]는 86만 2천 개로 2018년 8~10월(86만 4천 개) 이후 가장 많으며, 봉쇄정책 시행으로 급감했던 2020년 4~6월(34만 개) 대비 154% 증가한 수준이다. 빈 일자리의 증가율을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10만 2천 개)이 1,175%에 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드주나의 공동 창업자 앤드류 헌터(Andrew Hunter)는 동 부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봉쇄정책을 계기로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서 구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6] 그리고 건설업(3만 3천 개)도 1년 전에 비해 313% 증가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건설업은 고령화로 인해 이전부터 노동공급이 감소해 왔으며, 최근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EU 출신 노동자 감소와 건설 현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7]

또한 운수 및 창고업(3만 1천 개)도 빈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210% 증가했는데, 영국 채용 및 고용연합(Recruitment and Employment Confederation, 이하 'REC')의 부회장 케이트 슈스미스(Kate Shoesmith)는 영국 내 트럭 운송을 주로 담당하던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출신 운전기사들이 팬데믹 기간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구하고 브렉시트와 팬데믹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하게 되면서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8] 영국 물류협회(Logistics UK)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최소 3만여 건의 운전면허시험이 지연되면서 운전기사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고, 30%에 달하는 물류회사들이 트럭 운전기사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9] 또한 화물운송협회(The Road Haulage Association)

4) 아드주나는 2021년 2~4월 중 영국 내 일자리에 지원한 서유럽 및 북미 출신 노동자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월 2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William Schomberg(2021), "UK Firms Seek Staff After Lockdown but Foreign Workers Missing - Survey", May 17, *Reuters*,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 2021.7.18)).
5) 농수산업은 빈 일자리 수 산출 시 제외된다.
6) Richard Partington(2021), "UK 'Faces Labour Shortage' as Covid and Brexit Fuel Exodus of Overseas Workers", May 17,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8).
7) Gill Plimmer(2021), "Exodus of EU Workers Leaves UK Construction Industry Facing Shortages", June 14,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 (검색일 : 2021.7.18).
8) Robert Plummer(2021), "Where Have All the UK Workers Gone?", June 11, *BBC*, https://www.bbc.com (검색일 : 2021.7.18).
9) Gwyn Topham(2021), "UK Faces Chilled Food Shortage over Summer, Logistics Industry Warns", June 1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

[그림 3] 빈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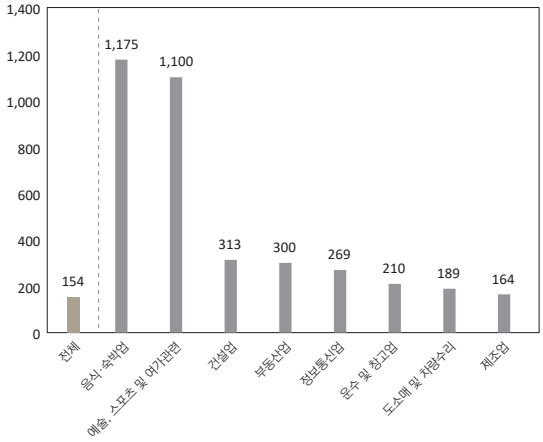
(단위 : 천 개)



주 : 3개월 이동 평균 기준.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Vacancies by Industry",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그림 4] 산업별 빈 일자리 수 증가율

(단위 : %)



주 : 2020년 4~6월 평균 대비 2021년 4~6월 증가율.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Vacancies by Industry",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는 약 8만 5천~10만여 명의 대형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다.[10]

그 밖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2021년 4~6월 빈 일자리 수(2만 4천 개)가 전년대비 1,100% 증가했고, 부동산업(1만 6천 개, 전년대비 300% 증가), 정보통신업(4만 8천 개, 전년대비 269% 증가) 등도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최근 영국의 노동력 부족은 회계법인 케이피엠지(이하 'KPMG')와 REC가 산출하는 직원가용성지수(staff availability inde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수가 기준점인 50보다 낮으면 직원 가용성이 전월대비 하락하였음을 의미하는데, 2021년 6월에는 25.4를 기록하여 직원 가용성이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산출을 위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용담당자들은 고용 증가, 브렉시트, 팬데믹 관련 불확실성, 강제 휴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임금 지원 정책[11] 등으로 인해 구직자가 줄었다고 언급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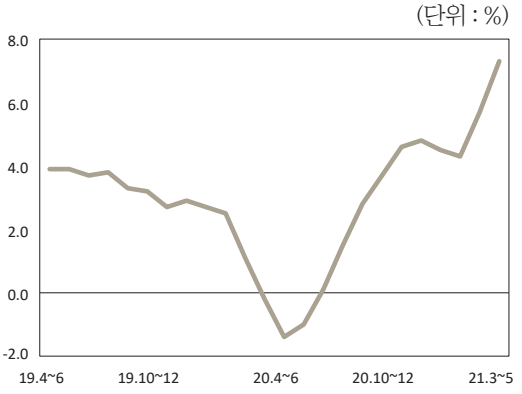
10) Lisa O'Carroll(2021.6.25), "UK Facing Summer of Food Shortages due to Lack of Lorry Drivers", June 25,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
11)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정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의 일환으로 강제 휴직 노동자에게 임금의 80%를 최대 월 2,500파운드(한화 약 380만 원)까지 지급해 왔다.
12) KPMG and REC(2021), "UK Report on Jobs", https://home.kpmg/uk/en/home.html (검색

■ 노동력 부족의 영향

임금 상승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 내 기업들은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13]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6월 평균 주당 총임금[14]은 전년대비 1.4% 하락하였으나 2020년 6~8월 중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1년 3~5월 중에는 인상률이 7.3%에 달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2020년 4~6월 중 10.3% 하락했던 건설업 임금이 2021년 3~5월에는 9.7%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임금도 5.4% 하락에서 8.5% 상승으로 전환되고, 제조업 임금 역시 3.4% 하락에서 5.2%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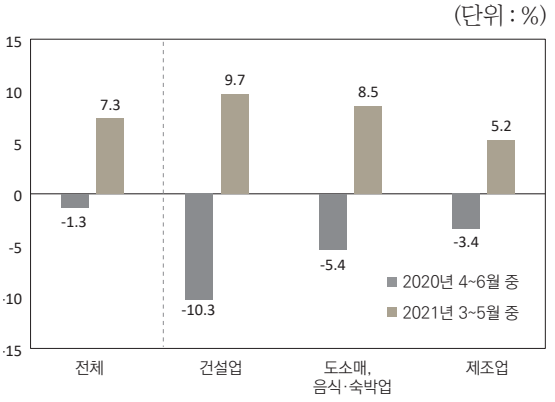
[그림 5] 총임금 상승률



주 : 3개월 이동 평균 주당 총임금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Average Weekly Earnings in Great Britain : July 2021",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그림 6] 산업별 총임금 상승률



주 : 3개월 이동 평균 주당 총임금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Average Weekly Earnings in Great Britain : July 2021",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일 : 2021.7.19).

13) Libby Cherry(2021), "U.K. Wage Inflation Emerges With Post-lockdown Staff Shortages", July 8,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 (검색일 : 2021.7.18).

14) 기본급과 보너스를 합한 임금을 의미한다.

한편 영국 통계청은 기저효과 및 노동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비교 대상 기간에 속하는 2020년 4월부터 봉쇄 정책 시행 등으로 임금이 하락했고 그 당시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5] 하지만 KPMG와 REC가 산출하는 임금지수를 보면, 이 같은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영국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수가 기준점인 50보다 높으면 채용 시 임금이 전월대비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1년 6월 정규직의 임금지수는 66.0으로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고 임시직 및 계약직의 임금지수도 61.6으로 2004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16]

생산 및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

최근 영국 식품업계는 음식가공 및 보관 관련 인력 부족에 더해 식품을 운송할 대형트럭 운전기사 부족까지 겹치면서 슈퍼마켓의 식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 중 하나인 테스코(Tesco) 대표는 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매주 48톤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17] 또한 EU 출신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영국 양계업계는 최근 구인난으로 가금류 도축량을 10% 줄였다고 밝혔다.[18] 이에 더해 7월 첫 주에는 국민건강서비스(NHS)의 검사 및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격리 경보를 받은 이용자 수가 전주에 비해 46% 증가한 53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식품업계 직원들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식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9] 그리고 식품 및 음료연합(Food and Drink Federation)의 대표 이안 라이트(Ian Wright)는 식품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일련의

15) ONS(2021), "Average Weekly Earnings in Great Britain : July 2021", https://www.ons.gov.uk (검색일 : 2021.7.18).
16) KPMG and REC(2021), op. cit.
17) Lisa O'Carroll(2021), op. cit.
18) Tom Espiner(2021), "Meat Sector Warns of Brexit Production Squeeze", June 17, *BBC*, https://www.bbc.com (검색일 : 2021.7.19).
19) Lamiat Sabin(2021), "Pingdemic 'Threatens Food Supplies' amid Warnings App Is 'Losing Social Consent'", July 18,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 (검색일 : 2021.7.19).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5%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

한편, 대형트럭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영향은 식품 공급에만 그치지 않는데, 일례로 BBC의 취재에 따르면, 서머싯(Somerset)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21]

■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최근 영국 정부는 대형트럭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8일까지 임시로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즉 불가피하고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일주일에 이틀까지는 운전시간을 기존의 9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전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업계의 비판도 제기되었다.[22]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노동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대형트럭 운전면허시험 확대, 지역 운전기사 신규 양성을 위한 훈련 확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3]

하지만 화물운송회사들은 비자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외국 출신 운전기사들을 좀 더 쉽게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법 완화와 관련된 주장은 여타 업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임시로 도입했던 계절노동자 비자제도를 연장하고 2021년에는 발급 건수를 3만 개로 늘렸다.[24]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과일 수

20) Sarah Butler(2021), "UK Food Worker Shortages Push Prices Up and Risk Christmas Turkey Supplies", July 11,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
21) Dave Harvey(2021), "Brexit and Covid Cause Big Jump in Pay for Lorry Drivers", July 2, *BBC*, https://www.bbc.com (검색일 : 2021.7.19).
22) Chris Morris(2021), "How Serious in the Shortage of HGV Drivers?", July 14, *BBC*, https://www.bbc.com (검색일 : 2021.7.19).
23) Sarah Butler(2021), "Lorry Driver Shortage : UK Government and Retailers in Emergency Talks", June 1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
24) GOV.UK(2020), "Up to 30,000 Workers to Help Reap 2021 Harvest", https://www.gov.uk (검

확 등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25] 또한 영국 경총(CBI)은 벽돌공, 용접공, 도축업자 등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을 인력 부족 직업군 목록에 즉시 등록하여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좀 더 쉽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26]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노동력 부족 중 일부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만, 브렉시트나 고령화의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자의 직업 선호나 근무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경우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별 노동력 부족 가능성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I

색일 : 2021.7.19).

25) BBC(2021), "Scottish Fruit Farmers' Fears over Shortage of Migrant Workers", May 12, *BBC*, https://www.bbc.com (검색일 : 2021.7.19).

26) Richard Partington(2021), "Combat Staff Shortages by Relaxing Brexit Immigration Rules, Says CBI", June 28,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검색일 : 2021.7.19).